

시조를 주제로 한 유튜브 영상콘텐츠의 특징과 의미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YouTube Video Content with the theme of Sijo

이채영*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시조를 소재로 한 영상군(群)을 설정하여 이러한 영상의 재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조 소재 유튜브 영상의 제작 및 향유가 의미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조회 수를 기준으로 상위 50개의 순위에 해당하는 시조(時調) 주제의 유튜브 영상콘텐츠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이러한 영상의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세부 항목으로 영상 제목, 채널명, 조회 수, 게시일, 재생 시간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50위권 내 영상 양상과 특징 분석을 토대로, 시조와 유튜브의 결합에서 발견된 시조 표현, 그리고 향유의 확장 가능성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시조와 유튜브의 결합은 첫째, '문자로서의 시조, 음악으로서의 시조'라는 이분법적 관점의 탈피 및 시조의 표현 확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유튜브 플랫폼의 특성을 활용하여 교수자 개개인이 시조 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영상을 제작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분석함으로써, 시조 교육의 다양화 모색 및 실질적인 시조의 디지털 교육 방법론 탐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고찰하였다. 셋째, 향유자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시조 밈(meme)의 자장으로서 시조 소재 유튜브 영상이 지니는 의미를 고찰했다. 본고에서는 시조를 주제로 한 유튜브를 시청하는 이용자의 반응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한 것은 후속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핵심어 시조, 유튜브, 영상콘텐츠, 플랫폼, 밈(meme)

- 차례**
- 서론
 - 조회 수 기준 상위 50개의 시조 소재 유튜브 영상콘텐츠 양상 및 특징
 - 시조와 유튜브의 결합에서 발견된 시조 표현·향유 확장의 가능성과 그 의미
 - 결론

1. 서론

시조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형시로 현대까지 창작, 가창, 낭송되면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시조의 가창이나 창작 등은 대중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시조 연구자나 국악 종사자, 또는 시조 전문 가객 등으로 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른 장르의 문화콘텐츠에 비해서 고전문학 전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나 향유가 적은 것처럼 시조에 대한 수요나 향유 역시 소수에 국한되는 현상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현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조

사된 플랫폼인 유튜브¹에서 시조가 어떻게 재현되고 향유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시조가 유튜브 플랫폼, 그리고 영상 매체와의 결합 환경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 그 특징을 파악하고, 유튜브의 영상으로서 시조를 표현하거나 이를 향유하는 현상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유튜브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동영상 플랫폼”²이며 “음악, 상품정보, 생활상식, 맛집, 뉴스 등 온갖 정보를 빨아들이는 ‘블랙홀’”³로 규정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에는 각종 주제의 영상이 업로드되며, 업로드되는 영상의 양은 해가 갈수록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특히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거치며 유튜브 이용자의 영상 조회 수는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유튜브 이용자의 증대나 이용량의 증대에는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는 유튜브의 환경적 특성이 작용한다.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이용자의 상호작용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개개인은 시시각각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비교적 유튜브 이용자가 자유롭게 영상을 조회, 구독할 수 있다는 편의성도 주요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전 세계의 현재 경향이나 이슈를 주제로 한 영상의 지속적인 보급이 가능하기에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는 강한 시의성도 유튜브 이용자 및 이용량의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한편, 유튜브는 유튜브 이용자의 각 영상에 대한 조회 수를 집계하고, 공개한다. 이처럼 영상에 대한 유튜브 이용자의 시청 경향을 조회 수로 계량화할 수 있다는 점은

시조 소재 영상과 관련한 대중의 반응에 대해 객관적 데이터를 토대로 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유튜브가 시조를 주제로 한 영상물을 누구든 자유롭게 제작하고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유튜브에 재현된 시조를 주제로 한 영상을 분석하는 것은 시조에 대한 대중의 기호 경향을 파악하고, 또한 시조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향유하는 실제 현상의 주요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 유튜브를 주제로 여러 분야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유튜브 플랫폼의 전반적인 특성을 논의한 경우와 유튜브 특정 채널에 대한 개별 분석 연구, 그리고 특정 주제나 분야의 유튜브 영상 군을 고찰한 연구 등으로 나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중에서 ‘시조’를 소재, 또는 주제로 제작한 유튜브 영상에 대한 분석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어나 한국문화로 분야를 좁혀서 살펴봐도 한국어 교육에서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다수 있을 뿐, 본격적으로 시조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분석한 연구는 역시 찾아보기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유튜브 플랫폼에서 시조를 소재로 한 영상을 검색하고 이러한 영상의 재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상을 특정 기준으로 정렬하여 각 영상의 공통적인 특징에 따라 유형화할 것이다. 그리고 유형화된 영상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시조 소재 유튜브 영상의 제작 및 향유가 의미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조회 수 기준 상위 50개의 시조 소재 유튜브 영상콘텐츠 양상 및 특징

본고에서는 시조를 주제로 한 유튜브 영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첫째, ‘시조’를 검색어로 입력하고, 둘째, 이 중 ‘조

1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다음 기사를 참고하기 바람.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는 지난해 말 국내 1위(사용자수 기준) 앱 자리에 올라선 뒤 카카오톡, 네이버와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경탁 기자, 「국내 1위 앱’ 자리 굳히는 유튜브... 네이버·카카오톡과 격차 더 벌려」, 《조선일보》, 2024.03.14.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4/03/14/SAPG5CJWLRCRFDRLHKHN2U5WA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검색일: 2024.03.25.)

2 최미경, 「유튜브 어린이 콘텐츠 연구」, 『스토리앤이미지텔링』 19, 건국대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20, 326쪽.

3 최미경, 위의 논문, 326쪽 재인용; 한국콘텐츠진흥원 편, 『콘텐츠산업 2018년 결산 및 2019년 전망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회 수'를 필터 항목으로 설정하였다.⁴ 셋째, 이 중 유튜브 조회 수 기준 상위 50위에 드는 '동영상'(숏츠(shorts) 제외)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⁵ 그런데 검색어 '시조'를 입력했을 때 조회 수 기준으로 상위에 제시되는 영상에는 '성씨 시조', '국가 시조', '시조카', '웹툰 진격의 거인, 시조의 거인' 등을 주제로 한 영상이 혼재되어 있다. 이들 영상은 제외하고, '時調'를 주제로 한 영상을 중심으로 조회 수 상위 1위부터 50위까지의 영상을 조사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에서는 조회 수(2024년 3월 말)를 기준으로 한 순위와 각 순위에 해당하는 영상콘텐츠의 제목, 해당 채널명, 실제 조회 수(2024년 3월 말), 영상 게시 연월일, 영상의 내용 요약, 재생 시간을 항목화하여 분류하였다.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위, 2위에 해당하는 영상을 제외하면 유사한 제작 목적이나 내용의 특성을 지닌 영상들이 3위~50위 내에 두루 편재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영상은 '교육 목적 영상'(26편)이고, 다음은 '뮤직비디오 스타일의 시조창 또는 시조 낭송 영상'(9편), '시조 가창 공연 현장 녹화 영상'(8편), '시조 음반 재생 영상'(2편), '시조 시인 황진이를 주제로 한 교육 영상'(2편) 순으로 집계된다.

4 '정렬' 기준에는 조회 수 외에도 다양한 항목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유튜브 이용자가 직접 시청하기로 선택한 영상이어야 '유튜브 향유'의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튜브 이용자의 '시조'에 대한 관심, 향유 등의 반응을 계량화할 수 있는 '조회 수'를 기준으로 영상을 정렬하였다.

5 '숏츠(shorts)'는 유튜브의 영상 중에서도 1분 내외의 시간 분량으로 제작된 짧은 동영상 일련을 위해서 유튜브가 제시한 용어이다. 또한 유튜브에 접속하면 여러 영상을 분류하는 대표 카테고리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 '숏츠(shorts)'는 다른 유튜브 영상에 비해 재생 시간이 짧으며, 화면 배율이 세로로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특징이 있다. 또 한 차례의 재생이 끝나도 지속해서 같은 영상이 자동적으로 반복 재생되는 특징이 있다.

한편, 짧은 재생 시간 때문에 '숏츠(shorts)'의 소재로 자주 활용되는 분야도 있으나, '시조'의 경우는 '숏츠'보다 일반 동영상 목록에서 더 많은 수의 콘텐츠를 찾아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비교적 공통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면서 다양한 영상을 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 대상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재생 시간이나 화면 표현 형식면 등에서 기존의 영상과는 차이가 있는 유튜브 '숏츠(shorts)'는 제외하고 논의를 진행함을 밝힌다.

또한 다수의 영상이 10분 내외의 길이로 제작되었으며, 특히 공연을 녹화했거나 시조창, 시조 낭송 등을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제작한 영상의 경우 5분 내외의 길이로 제작된 경우가 많았는데 영상의 이러한 시간 분량 특징은 시조 한 편에 대한 가창, 낭송의 시간이 영상의 시간으로 고정된 것에서 비롯된다. 이에 비해 시조 교육 콘텐츠의 경우 2분짜리 영상부터 1시간이 넘는 강의 현장 녹화 영상 등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한편, 영상이 업로드된 시기의 경우, 2012년 1편, 2013년 6편, 2015년 2편, 2016년 3편, 2017년 2편, 2018년 1편, 2019년 3편, 2020년 14편, 2021년 13편, 2022년 2편, 2023년 1편으로 집계된다. 2020년 전, 그리고 거리 두기 정책이 대폭 완화된 2022년 이후의 경우 적게는 1편, 많게는 6편 등으로 영상이 집계되는데, 이에 비해 2020년과 2021년에 업로드된 영상 중 조회 수 상위 50위 안에 드는 영상이 27편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온택트(on:tact)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유튜브 제작에 뛰어들거나, 각종 영상을 유튜브로 시청하는 유튜브 이용자가 증가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 조회 수 기준 상위 50위 안에 두 편 이상의 영상이 게시된 채널은 다음과 같다. 50위 안에 선정된 영상의 편수가 가장 많은 채널은 'artmeditation'(7편)과 '수선국어'(7편)이다. 이들 다음으로 50위 안에 선정된 영상 편수가 많은 채널로는 '수지쌤의 국어시간'(3편), '강숙현 정가TV'(2편), '국립국악원'(2편)을 들 수 있다. 각 채널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artmeditation'은 뮤직비디오 형식을 활용하여 전문 가객 '남계 박종순'의 시조창을 시조 작품별로 나누어 제작한 영상이 다수 업로드된 채널이다. artmeditation 채널 영상의 공통된 특징으로는, 90년대에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뮤직비디오와 유사한 표현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90년대에 제작, 방영되던 뮤직비디오처럼

(표 1) 조회 수 순위 1~50위에 해당하는 ‘시조’를 주제로 한 유튜브 영상콘텐츠 (2024년 3월 말 검색 기준)

순위	제목	채널명	조회 수	게시일	영상내용 요약	재생 시간
1	“한국 시조 배우다가 한국어의 반전 매력에 푹 빠진 미국 고등학생들”	원더wonder	554,100	2020.08.25	미국 시조 교육 현장 소개	10:05
2	[#알쓸신잡1] 쇼미더머니! 정몽주 vs 이방원 ‘시조배틀’의 역사	tvN	346,610	2017.07.21	시조와 관련한 역사에 대한 설명	3:40
3	시조창 :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남계 박중순] 느낌의 미학 풍류와 휴식	artmeditation	121,134	2012.05.12	시조창 음악 + 풍경 영상	4:52
4	시조창 우시조 나비아 청산가자 / 남계 박중순_느낌의 미학 풍류와 휴식	artmeditation	84,218	2013.03.12	시조창 음악 + 풍경 영상	5:21
5	교과서 속 우리음악 : 평시조 ‘동창이’	국립국악원	81,822	2016.07.07	시조 공연 실제 녹화 영상	4:10
6	시조창 사설시조 팔만대장 부처님께 비나이다 : 남계 박중순_느낌의 미학 풍류와 휴식	artmeditation	77,585	2013.03.09	시조창 음악 + 풍경 영상	5:37
7	시조창 : 남계박중순 남창지름시조 푸른산중백발옹이 고요독좌향남봉_느낌의 미학 풍류와 휴식	artmeditation	70,783	2012.05.04	시조창 음악 + 풍경 영상	5:23
8	광주 MBC영상 시조 청산은 만고에 푸르르며	Smile Kim	68,314	2015.07.29	시조 공연 실제 녹화 영상	3:39
9	시조의 기초 완전이해 시조의 개념 시조의 형식 시조의 갈래	혜진샘	45,141	2020.06.17	시조 교육 영상 + 실제 공연 영상 부분 활용	8:59
10	[드라마] 황진이 시조 모음	moon	36,159	2021.07.12	드라마 황진이의 시조 낭송 장면 모음	6:30
11	국립국악원 토요정담:한국갠이어 대표 안시준 [2015.03.21] 03. 평시조 “태산이 높다 하되”	국립국악원	34,326	2015.03.26	시조 공연 실제 녹화 영상	4:45
12	[공무원 국어] 공무원 국어 고전 시조 끝내기특강	공무원 교육1위 해커스공무원	33,095	2016.10.05	시조 교육 영상	1:08:47
13	동짓달 지나긴 밤을_황진이	수지쌤의 국어시간	32,846	2020.10.17	시조 교육 영상	19:01
14	평시조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_박중순 시조창_느낌의 미학 휴식과 풍류	artmeditation	31,198	2020.04.17	시조창 음악 + 풍경 영상	4:38
15	이화우 훗뿌릴 제(홍량) / 수양산 바라보며(성삼문)	수지쌤의 국어시간	26,747	2019.06.26	시조 교육 영상	14:09
16	시조창 남창지름시조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 남계 박중순_느낌의 미학 휴식과 풍류	artmeditation	24,705	2013.03.03	시조창 음악 + 풍경 영상	5:06
17	십년을 경영하여_송순	수지쌤의 국어시간	21,128	2020.10.17	시조 교육 영상	7:03
18	[시조 한번에 개념 정리하기] 3장 6구 45자 내외 시조 기본 형식 이해하기 (시조 기초 개념과 구조 한번에 이해하기)	수선국어	20,009	2021.08.17	시조 교육 영상	6:29
19	[#일타강사] 학교에선 안 가르쳐주는? 19금? 황진이 시조의 숨은 의미 #엠뚜루마뚜루 #볼교양 MBC221130방송	엠뚜루마뚜루: MBC 공식 종합 채널	19,835	2022.12.01	시조 관련 황진이 일화 교육 영상	8:19
20	정가여신 하윤주가 부르는 ‘우시조 월정명’ 달이 비친 강에서 술을 마시며 즐기는 뱃놀이의 정취를 담은 시조 [2020 풍류달빛공연]	얼씨구TV	19,332	2020.10.09	시조 실제 공연 녹화 영상	4:11
21	이은아 라임국어 - 시조 (고려가 망함을 한탄하는 시조 : 백설이 자자진 골에, 흥망이 유수하니, 오백년 도읍지를 등) (http://www.라임국어.com)	라임국어학원	18,178	2018.01.04	고1 시조 교육 영상 (강의 장면)	39:52
22	강숙현 객/정가(가곡,가사,시조)발성 설명(풍류단 시가인 대표)/청계천 문화관(2010.1216)	강숙현 정가TV(가곡,가사,시조)	16,988	2013.01.14	가곡 발성 교육 현장 녹화 영상	6:22
23	[국악콘서트 판] 평시조 ‘동창이’ : 김병오	GugakTV	16,959	2021.01.17	캘리그래피(붓글씨)와 함께 진행된 시조창 공연 녹화 영상	4:17

순위	제목	채널명	조회수	게시일	영상내용요약	재생시간
24	시조창 반각시조 초당에 곤히 든 잠: 남계 박중순_느림의 미학 풍류와 휴식	artmeditation	16,960	2013.02.27	시조창 음악 + 풍경 영상	4:39
25	시조, 시조의 형식과 종류 [문학과 삶, 그리고]	문학과 삶, 그리고	16,457	2020.05.26	시조 교육 영상	5:55
26	[미래엔문학교과서] 고2: 시조 세 편 / 춘산에 눈 노긴 바람~, 수양산 바라보며~, 뒷버들 갈해 것거~	성은T국어	16,258	2020.06.05	시조 교육 영상	17:58
27	[수선국어 고전문학 시리즈 107-2] 시조 어저 내 일이어 한번에 정리하기 (황진이) (원문 해설, 해석)	수선국어	16,204	2021.02.27	시조 교육 영상	3:10
28	진지한 시조 수업 영상: 시조 고수 되는 법(주제별 시조 분석 자료 - 필수다운)	박민석	15,493	2021.02.26	시조 교육 영상	14:02
29	[이투스]국어_신영균 쌤_평시조와 사설시조의 차이	유니TV	15,062	2019.05.03	시조 교육 영상	2:33
30	박덕화 명인: 남창지름시조 '바람아 부지마라' (1967년)	정은주	13,877	2017.02.18	시조창 음악 + 무대 사진으로 구성된 영상(당시 녹음된 음반으로 영상 구현)	4:23
31	[오아시스레코드] 시조가사 12곡	오아시스레코드	12,649	2020.08.31	레코드 음반 12곡 모음 영상	1:02:16
32	[7분만에] 알아보는 조선 최고의 시조시인, '황진이'에 관한 9가지 이야기	5분문학	12,287	2022.08.29	황진이에 대한 교육 영상	7:15
33	고전시가 마인드맵(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악장, 한시, 언해, 민요, 잡가): 하지혜의 국어산책	가람 국어TV	11,304	2020.03.25	시조를 포함한 고전시가 전반에 대한 마인드맵 강의 영상	15:20
34	[수선국어 고전문학 시리즈 107-1] 시조 동짓달 지나긴 밤을 한번에 정리하기 (황진이) (원문 해설, 해석)	수선국어	10,924	2021.02.26	시조 교육 영상	2:45
35	[시낭송]오우가#윤선도#시조낭송(낭송:봉경미/음악: 손방원팬플룻)	봉경미시낭송카페	10,809	2021.08.18	시조낭송 + 풍경 영상	3:33
36	중허리시조(산촌에)	맹주선	10,561	2019.01.10	시조창 + 화면 변화 거의 없음 (박석순 명창 얼굴 사진만 제시)	4:15
37	시조장단 무릎장단으로 쳐 보기	YKO	10,382	2020.09.08	시조장단 교육 영상	2:07
38	시조의 형식	수아쌤	9,636	2023.06.16	시조 교육 교실 녹화 영상	27:49
39	一齋 양장열선생 시조창법 특강 제3부 1강 "사설시조 팔만대장"	설촌힐링대금	9,505	2016.01.28	시조창 교육 현장 녹화 영상	15:09
40	여창지름시조(청조야)/강숙현/ KBS국악한마당(2010.7.3)	강숙현 정가TV (가곡, 가사, 시조)	9,457	2013.01.06	시조 공연 녹화 영상	3:58
41	우시조 나비아 (김영미)	소리마을	9,101	2019.03.23	시조 공연 녹화 영상	4:32
42	[수선국어 고전문학 시리즈 099-1] 시조 단심가 이 몸이 죽고 또 죽어 한번에 정리하기 (정몽주) (원문 해설, 해석)	수선국어	8,524	2021.01.06	시조 교육 영상	3:38
43	[고2 내신] 문학 비상 4(2) 시조 네 편 내신대비 강의	나무아카데미	8,372	2020.12.18	시조 교육 영상	5:18
44	중학 국어 / 시조란? 시조의 개념과 형식, 종류	할망고	8,230	2020.05.17	시조 교육 영상(중학)	20:23
45	[수선국어 고전문학 시리즈 111-1] 시조 이화우 흘 뿌릴 때 한번에 정리하기 (계량) (원문 해설, 해석)	수선국어	8,025	2021.04.06	시조 교육 영상	2:52
46	시조창 무작정 배워보기 3강(동창이 밝았느냐)	시조가객	7,694	2020.10.06	시조창 교육 영상	8:43
47	[수선국어 고전문학 시리즈 104-2] 시조 수양산 바라보며 한번에 정리하기 (성삼문) (원문 해설, 해석)	수선국어	7,681	2021.02.10	시조 교육 영상	6:38
48	[10분국악 #3](시조와 가곡) 이거 완전 선비음악 아니냐	음플릭스	7,644	2021.05.04	시조와 가곡 교육 영상	10:09
49	푸른 산중 하에/엮음지름시조/석암제 시조창 이수자 이현배 시연/장구 반주 이상래 예능보유자/충청북도 무형문화재 기록화	MBC충북NEWS	7,587	2021.11.24	시조창 공연 녹화 영상	6:10
50	[수선국어 고전문학 시리즈 104-1] 시조 이 몸이 죽어가서 한번에 정리하기 (성삼문) (원문 해설, 해석)	수선국어	7,491	2021.02.09	시조 및 성삼문에 대한 교육 영상	4:29

‘artmeditation’ 채널의 영상에서는 주로 시조창이 음악으로 흘러나오는 동시에 화면에서는 노랫말과 관련된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재현되며, 이와 함께 노랫말이 자막으로 제시된다. 이 채널에서 각 영상의 제목에 일관되게 내세우고 있는 키워드는 “느림의 미학”, “휴식”, “풍류”이다. 이를 통해 채널의 영상 기획 및 제작 방향과 목적이 유튜브 이용자의 휴식, 풍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rtmeditation’의 영상 7편 중 2012년, 2013년에 업로드된 영상이 대다수이며, 2020년에 업로드된 영상은 1편 존재한다. ‘artmeditation’ 채널에서 영상의 업로드 시기의 차이가 영상 조회 수와 정확하게 비례하지는 않으나,⁶ 그래도 비교적 상위 순위권인 10위 내에 진입하였으며 조회 수가 70,000 이상인 영상이 주로 2012, 2013년에 제작된 점, 그리고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2012, 2013년에 업로드된 영상의 경우 10년 넘게 영상 조회 수가 누적되어 왔다는 점에서, ‘artmeditation’ 영상 업로드 시기가 영상 조회 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artmeditation’과 마찬가지로 50위 안에 선정된 영상이 7편인 채널로 ‘수선국어’를 들 수 있다. ‘수선국어’에서는 ‘수선국어 고전문학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각 영상의 제목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1개의 영상에서 1수의 시조 원문을 해설하는 특징을 보인다. 정몽주, 황진이, 성삼문, 계량 등의 고시조를 한 수씩 해설하는 교육 분야의 영상이며, 각 영상의 재생 시간이 2분~7분 사이로 짧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수선국어’에 업로드된 영상의 공통된 특징이다. 또한 7편의 영상 모두 2021년에 업로드되었는데, 이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학습이 확산된 시기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기에 온라인으로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교육 수요자는 본인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온

라인 환경에서 몰입하기 가장 적합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배경이 맞물려 2021년에 업로드된 ‘수선국어’의 영상 조회 수가 상위 50위 안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팬데믹 이후 장시간의 교육 내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긴 영상보다는, 교육 수요자가 짧은 시간 동안 쉽게 몰입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주제별로 검색해서 쉽게 한 편씩을 볼 수 있는 교육 영상을 선호하는 반응이 일정 수준 이상의 조회 수(평균 조회 수, 조회기간)로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 순위로, 50위 안에 선정된 영상이 3편인 채널은 ‘수지쌤의 국어시간’이다. 이 채널 역시 ‘수선국어’와 마찬가지로 문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이다. 다만, ‘수지쌤의 국어시간’은 업로드 시기가 2019년, 2020년으로 ‘수선국어’보다 앞서며 ‘수선국어’에 비해 영상 분량이 7~19분 사이로 조금 더 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50위 안에 선정된 영상이 2편인 채널은 ‘강숙현 정가TV’(2편), ‘국립국악원’(2편)으로 각각 노래로서의 시조, 음악으로서의 시조를 직접 구현해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연 현장을 녹화한 영상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보이는 채널이다.

다음으로, 영상 조회 수 순위에 따른 각 영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0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한 영상은 1~3위까지의 영상콘텐츠로, 2020년에 업로드된 1위 영상, “한국 시조 배우다가 한국어의 반전 매력에 푹 빠진 미국 고등학생들”이 554,100의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2위인 2017년 업로드 영상 “[#알쓸신잡1] 쇼미더머니! 정몽주 vs 이방원 ‘시조배틀’의 역사”가 346,610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3위 영상은 2012년에 업로드된 “시조창 -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남계 박종순] 느림의 미학 풍류와 휴식”으로 이는 121,134의 조회 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1위와 3위 영상의 조회 수를 비교해 보면, 약 4.5배 가량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6 그 예로 2020년 업로드 영상의 조회 수는 31,198로, 2013년 업로드 영상의 조회 수가 24,705나 16,960으로 집계된 것을 들 수 있다.

1~50위 중 순위 구간별로 각 순위에 해당하는 영상 조회 수의 격차를 살펴보면 격차가 고르게 드러나지 않는다. 격차가 큰 구간이 있는가 하면 격차가 작은 구간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4위~8위까지는 60,000~80,000회의 조회 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지만, 9위~18위는 20,000~40,000회의 조회 수를 기록한 구간으로, 19위~37위는 10,000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한 구간으로, 38~50위는 7,000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한 구간으로 집계된다. 이는 유튜브 채널 전체 영상을 기준으로 필터링했을 때, 상위 50위에 랭크된 다른 주제의 영상 조회 수 순위에 비해 다소 저조한 기록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주제나 분야의 영상 선호도에 비해 시조에 대한 유튜브 이용자의 선호도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시조와 유튜브의 결합에서 발견된 시조 표현·향유 확장의 가능성과 그 의미

3.1. '문자로서의 시조, 음악으로서의 시조'라는 이분법적 관점의 탈피 및 시조의 표현 확장을 가능하게 한 장, 유튜브

1906년 개화기 「혈죽가」로부터 최초의 활자 언어로 거듭나면서 노래가 아닌 문학으로⁷ 이행했다는 논의처럼, 《대한매일신보》 '사조'란에 지속적으로 실린 시조는 기존의 '읽고 부르는 형태'에서 주로 '읽는 기록물'로 수용, 인식되는데,⁸ 이 특성은 현대까지 이어져 결국 시조는 "노래로 불리던 구어 문학에서 문자 문학으로"⁹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음악으로서의 시조 연행방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20세기에 이르면서 음악으로서의 시조 연행 방식은 전문 관객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중이 시조를 인지하는 방식은 주로 문자 위주로 전달되는 문학으로서의 시조 작품이다. 왜냐하면 대중이 처음으로 시조를 접하는 것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조 교육에 의해서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로 인쇄 매체를 통해 문자 위주의 전달로 이루어지는 문학 교육 방법으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이다.

현대의 이러한 문자, 문학 위주의 시조 전승 경향은 시조 작품의 문자 데이터베이스의 체계 및 저변을 확대하고, 시조의 문학적 가치와 함의에 대한 연구, 시조의 시어나 시구가 문학으로서의 시조 정형과 미학을 형성하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는 조선 당대에 노래로 가창되던 시조 본연의 음악성은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게 만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런데 유튜브 플랫폼에 재현되고 있는 영상에서는 문자로서 시조가 전달, 전승되는 양상과 함께, 시조가 낭송되거나 음악으로 연행되는 양상을 두루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시조의 가창 방식이나 장단, 음악적 특성마저도 문자 위주의 텍스트로 전승하던 기존의 문학 편향적인 시조 표현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영상을 통해 학습자가 창자의 노래 과정을 생생하게 접하면서 쉽게 이해하고 시조를 몸소 체득할 수 있는,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시조 표현과 전승으로의 이행이 가능하다. 유튜브의 이러한 장점은 1900년대 이후 약화되었던 시조 고유의 음악적 연행의 장을 확대하거나 음악으로서의 시조 향유 문화를 대중화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장의 형성에는 유튜브 고유의 개방성이 전제된다. 현대인이 자신의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현대인들은 다양한 네트워크로 열려 있고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다. 스마트 기기가 있는 한, 누구나 유튜브에

7 류수열, 「한국어교육을 위한 시조의 활용 가능성 연구」, 『문학교육학』 45,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220쪽.

8 강명혜, 「시조의 변이 양상」, 『시조학논총』 24, 한국시조학회, 2006, 23쪽.

9 홍숙영, 「현대시조와 디지털 미디어의 융합 교육 모델 개발」, 『시조학논총』 60, 한국시조학회, 2024, 254쪽.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문 제작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비교적 쉽고 간편하게 영상을 찍고, 업로드할 수 있기에 시조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기획하거나 제작한 영상이 다양한 스타일로 업로드되는 현상이 지속된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인 개개인의 촬영 영상이 누적되면서 알고리즘에 따라 유튜브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에게 시조와 관련된 영상이 지속적으로 펼쳐진다. 따라서 시조 전문 가객이나 국악 관련 채널에서 녹화한 공연 실황 영상, 또는 개인이 시조 낭송을 하여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제작한 영상, 또는 시조창에 대한 교육 현장을 실시간으로 녹화하여 올린 영상, 또는 시조 문학에 대한 교육 영상 등 각기 다른 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주제의 영상이 올라올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영상 제작과 시청의 전통적인 형태인, TV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전체 편성표에 의거해 관리, 통제하던 텔레비전 방송국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영상 제작 및 유통, 수용의 방식이다. 유튜브 플랫폼은 이용자가 특정 영상을 편의에 따라 어느 시간대나 공간에서도 즉각적으로 선택하여 시청,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 개개인이나 집단이 시조를 주제로 한 특정 영상을 음악으로의 연행과 같은 목적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에서는 해당 유튜브버가 영상을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처리하지 않는 한, 시조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을 업로드 시기와 관계없이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

한편, 영상 매체는 음성, 음악, 그 외 음향, 문자, 이미지, 움직임 등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는 멀티미디어이다. 유튜브 역시 영상 매체이므로, 멀티미디어로서의 강점을 잘 살린 영상이 유튜브 이용자에게 더 각광 받을 수 있다. 멀티미디어는 특히 향유자가 하나의 감각 기관만으로 수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감각 기관을 통해 동시에 다양한 신호를 전달하고 향유자의 뇌는 이러한 복잡다단한 신호를 해석, 종합하면서 자신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신경,

기억, 감정 등에서 비롯되는 반응과 연결지으면서 향유의 감각을 극대화할 수 있다. 예컨대, 시조창이나 시조 낭송 음성을 처음 접하는 이는 청각을 통해 시조창, 시조 낭송 음성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영상을 통해 제시되는, 배경 화면의 움직임은 시각을 통해 수용하게 된다. 화면에서는 시조의 노랫말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이미지가 연결되면서 동시에 시조 노랫말이 자막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적인 정보의 수용으로 향유자는 이미지화, 텍스트화된 시조의 노랫말이 지니는 의미를 수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멀티미디어에 의한 다양한 신호 전달을 통해 문학 또는 음악으로서의 시조 향유를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 불리는 유아를 비롯한 10~20대 연령층이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연스럽게 손쉽게 동요를 비롯한 다양한 음악 장르를 접한다는 논의나,¹⁰ 이들이 동영상을 활용하여 음악감상 활동을 전개했을 때 더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참여하여 음악의 주제나 배경을 이해¹¹한다는 논의 등을 고려해 볼 때, 유튜브 플랫폼을 통한 시조의 향유는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적합한 향유 형태일 것이며, 이러한 향유의 경향은 앞으로도 유지되거나 다양화될 수 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유튜브는 디지털 네이티브가 음악을 향유해 온 익숙한 방식을 시조 본연의 미학과 접목시키고, 또한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디지털 기술 및 변화된 매체 환경 및 특성을 복잡다단하게 반영하여 새로운 시조 콘텐츠의 독자적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것이다.

10 양지애, 「영유아 교육용 콘텐츠 ‘핑크퐁’ 동영상에 수록된 동요의 음악적 특성 분석」, 『예술교육연구』 16(4), 한국예술교육학회, 2018, 63쪽.

11 문혜련, 「미디어를 활용한 유아음악감상 방법의 제안과 그에 따른 활동의 예」, 『어린이미디어연구』 4,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2005, 41~63쪽. 이 논문과 함께, 앞서 인용한 양지애의 논문에서는 유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들 논문에서 지적하는 현상은 유아뿐 아니라 10, 20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므로 10, 20대 연령층으로 대상을 확장하여 논의를 전개하였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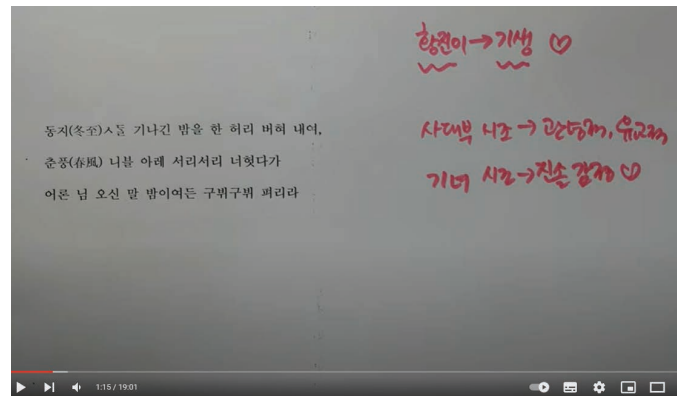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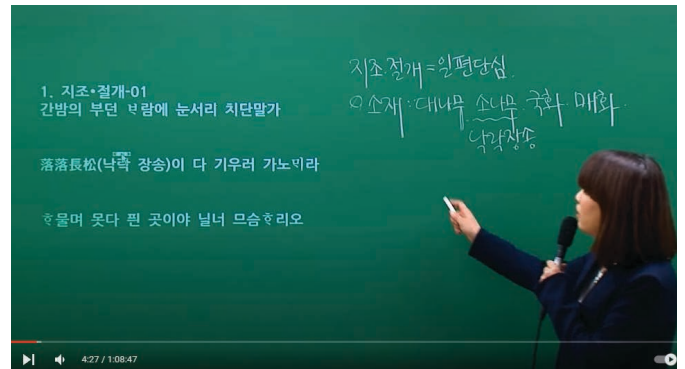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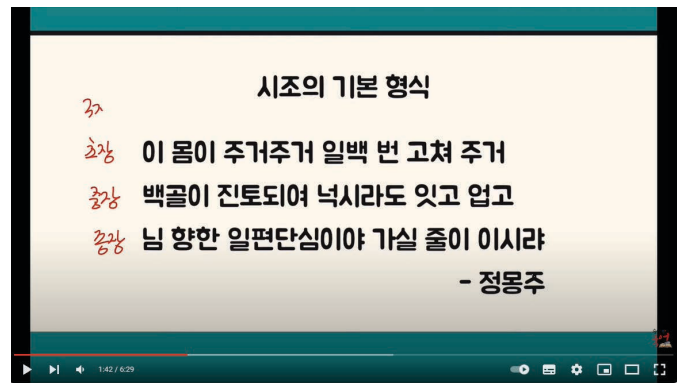
3.2. 유튜브 플랫폼의 특성을 활용한 시조 교육 방법의 다양화

기존 시조 교육은 주로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강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왔으며, EBS 교육방송이나 그 외의 온·오프라인 사교육 시장에서 시조에 대한 교육과정이 학원 현장에서 또는 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2020년 이후 온라인 학습이 강화되면서, 학습자의 학습 양상의 패러다임 역시 변화를 보인다. 짧은 길이의 영상을 뜻하는, 숏폼 콘텐츠의 위상이 확대된 것이다. 기존 시조 교육 영상의 길이가 1시간, 또는 20분 내외였던 것이 반해 5분 내외의 짧은 영상, 시조 한 수 소개 등의 영상이 다수 제작되고 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등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시간으로 수치화되는 영상 길이의 변화는 시조 장르의 교육에 있어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조는 한국시가 역사상 최단형의 정형시¹²이기 때문에 시조 한 수로 한정하면 ‘수선국어’ 채널의 교육 영상 사례처럼 5분 내외로 재생되는 숏폼 형태의 교육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 이처럼 짧은 시간 분량의 교육 영상은 제작자 입장에서 기획 및 제작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편의에 따라 시조 교육 영상을 보다 가볍고 여유로운 상황에서 쉽게, 또 원하는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한편, 50위까지의 시조 교육을 주제로 한 유튜브 영상에서 다양한 교육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가장 많은 수의 영상이 50위 권 내에 진입해 있는 ‘수선국어’ 채널의 경우, 슬라이드 형태의 시조 교육 내용을 정리한 화면을 넘기면서 이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음성으로 동시 녹화하는 형태의 교육 방식을 영상에서 대다수 활용하고 있다. ‘수지쌤의 국어시간’ 채널에서도 교수자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고, 교수자의 음성 위주로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은 ‘수선국어’와 공통된다. 그러나, PPT 형태의 슬라이드가 아닌, 시조가 적힌 종이가 화면에 주로 제시되고 있어서 학습자는 교사가 종이 위에 직접 필기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공유하면서 교사의 필기하는 손놀림에 집중하게 된다. 이 외에도 실제 강의실 현장에서 교수자가 강연하는 장면을 녹화한 교육 영상이 업로드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 강의를 진행한 시간인 30분 내외, 또는 60분 이상의 시간으로 재생 시간이 다른 교육 영상에 비해 비교적 긴 편으로 파악된다.



<그림1> 시조 교육 영상 중 ‘수선국어’(위), ‘공무원 교육 1위 해커스공무원’(가운데), ‘수지쌤의 국어시간’(아래) 채널 영상 캡처 장면

그런데 이 중 실제 강의를 녹화한 영상은 50위 이내 영

12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 2007, 7쪽.

상 중 2개에 그치고 있다. 이는 곧 실제 강의 현장을 그대로 녹화해서 올리는 영상보다는 유튜브 플랫폼의 장점인 길이가 길지 않고, 그 자체로 완결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는 영상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2021년에 업로드되었다는 점에서 현장 강의 녹화 영상보다 뒤늦은 후발주자였던 ‘수선국어’와 같은 채널에서 7개의 영상이 50위 권 안에 드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는 점은, 유튜브 매체의 특성과 이러한 숏폼 교육 콘텐츠에 대한 학습자의 수요를 잘 이해하고 이에 맞춰 적절한 내용과 형태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법 시도의 필요성을 재고하게 한다.

한편, 유튜브는 문학으로서의 시조 교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서의 시조 교육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든 장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시조 교육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고, 교육 현장에서는 이를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37위의 “시조장단 무릎장단으로 쳐 보기”(YKO 채널)의 경우, 그림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조의 리듬감을 영상 시청자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무릎장단을 언제 쳐야 하는지를 적절하게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시조장단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영상을 따라 하면서 무릎장단을 쳐 볼 수 있다. 39위, “一齋 양장열선생 시조창법 특강 제3부 1강 “사설시조 팔만대장””(설촌힐링대금 채널)이나 46위, “시조창 무작정 배워보기 3강(동창이 봤었느냐)”(시조가객 채널) 역시 시조창법을 교육하는 현장을 녹화한 영상으로, 이 영상에서 강연자의 시연과 설명을 본 학습자는 시조창을 따라 부를 수 있다.

꼭 ‘교육’을 주제로 내세우는 영상이 아니더라도, 즉, 시조를 노래로 부르거나 낭송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만이 주요 목적인 영상 역시, 시조를 문학으로만 접한 학습자들이 노래로서의 시조를 직접 접할 수 있고 과거 노래로서의 시조가 어떠한 양상이었는지를 생생하게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육 자료로서의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

이 지점에서 시조가 학습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시조를 대할 때 생기는 불편한 요소를 최소화하고,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하는 한편 유용한 의미도 지니도록 해야 한다는 김상진의 논의¹³나, 변화된 시대상에 맞게 시조를 교육하기 위해 디지털 방식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정은선·고정희의 논의¹⁴는 유튜브 플랫폼의 시조 소재 영상을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과 깊이 연관된다. 다양한 형태와 길이, 내용적 특징을 지닌 시조 교육 영상이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로드되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학습자 개개인은 시조를 가볍고 쉽게 접할 수 있고 시조에 대한 흥미를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문자에서 벗어나 이미지나 음악 등 멀티미디어의 시청각적 요소를 다채롭게 활용하는 방식은 시조 교육의 획일적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확장된 교수 학습의 새 경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3.3. 향유자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시조 밈(meme)의 자장

시조 밈(meme)에 대해 논의하려면 먼저 ‘밈’의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밈은 리처드 도킨스가 ‘모방대상’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어원 ‘mimeme’에서 따온 축약 용어로, 문화 전달의 단위 또는 모방의 단위라는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 명사의 이름이다. 도킨스의 논의에 따르면 웃이나 식습관의 유행, 예식, 관습, 기술 등도 모두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복사되는 것으로, 이러한 밈이 사람들의 뇌에 저장되며, 모방을 통해 전달된다.¹⁵ 즉, 밈은 한 문화에서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며 자기복제, 변종, 선택적 적응을 하는 유전자와 유사하며,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확산된다.¹⁶ 특히 오늘날에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밈의

13 김상진, 「실용교과로서의 시조, 시조 교육」, 『시조학논총』 60, 한국시조학회, 2024, 9쪽.

14 정은선·고정희, 「가상현실을 활용한 한국 시조 체험의 가능성과 내용 연구」, 『문학교육학』 76, 한국문학교육학회, 2022, 371쪽.

15 수전 블랙모어, 김명남 역, 『밈』, 바다출판사, 2010, 42~43쪽.

16 조동기, 「사이버 공간의 문화적 특성과 ‘인터넷 밈’의 확산에 대한 연구」,

복제, 재생산이나 확산 등이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으므로, 온라인에서의 밈의 작용과 기능, 의미 등을 고찰하는 연구들이 지속되어 온 바 있다.¹⁷

한편, 미디어는 창조(Creation), 재창조(Recreation), 복제(Replication), 소비(Consumption)의 4가지 매개 작용에 의해 발달, 진화한다는 윤지영의 논의¹⁸에 더불어, 강재신은 미디어의 매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와 콘텐츠는 짧은 길이와 다양한 기호로 변형, 편집, 재생산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복제, 변형, 재생산 등의 특성이 밈 활용 콘텐츠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¹⁹

이러한 미디어 및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적 특성은 유튜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부터 존재한 다양한 TV 영상 및 오래도록 구전되어 오거나 또는 새롭게 시작된 이야기 등은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에 최적화된 향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짧은 길이로 편집되거나, 특정한 스타일로 새롭게 재창작되는 등의 변이 양상을 보인다. 시조를 소재로 한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러한 변이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국악TV 채널에 업로드된 1990년대의 시조창 공연 영상은 과거 1990년대에 방송국에서 제작된 TV 매체에 특화된 영상이지만, 유튜브 영상으로 재편되면서 공연 전후의 내용이 삭제되고, 주로 시조 작품 한 수의 공연이 진행되는 과정만 나올 수 있도록 편집된 특성을 보인다.

밈에 대한 논의는 시조 연구에서도 시도된 바 있다. 김지은(2024)은 시조가 시대에 따라 변화, 발전한 일련의 과

『철학·사상·문화』 21,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6, 219쪽.

17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문을 들 수 있다. 조동기, 위의 논문; 강재신, 「밈 콘텐츠의 커뮤니케이션 분석을 위한 기호학적 접근: 그레마스의 의미생성모델을 중심으로」, 『CONTENTS PLUS』 18(1), 한국영상학회, 2020, 23~39쪽; 박장순, 「신한류시대의 메인스트림 K-pop의 확산에 관한 연구: K-pop의 밈이론적 해석과 한류사 시대 구분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6(4),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2, 1~24쪽.

18 윤지영, 「매개의 4가지 유형: 창조, 재창조, 복제, 그리고 소비」, Organic Media Lab, 2013, <https://organicmedialab.com/2013/08/01/4-types-of-mediation/>.

19 강재신, 위의 논문, 26~27쪽.

정과 함께, 고시조가 현대 콘텐츠화되는 양상들은 시조가 환경에 따라 적응하고 대물림되고 있는 문화 유전자임을 보여준다고 논의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시조가 단형식의 노래이므로 충실도가 뛰어난 '장기기억'이 가능한 아이디어의 단위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고찰하였다.²⁰

이러한 논의를 수용해 보면, 시조를 소재로 한 유튜브 영상콘텐츠는 단순히 과거의 고전 시가 장르를 변용한 개별 콘텐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밈의 복합체로서 작용하며, 개별 밈은 다양한 유튜브 영상의 제작과 향유의 네트워크 속에서 복제, 변이, 확산, 재창작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튜브에 업로드된, 시조를 소재로 한 1편의 영상은 그 자체로 독립성, 완결성을 지니지만, 동일 채널에서 후속 업로드되는 영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여타의 채널이나 타 제작자, 향유자 등과 밈으로서의 '시조'를 전달, 공유, 표현, 확산, 재생산하는 네트워크를 생성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과급력이 상당하다.

이때 밈으로서의 시조는, 향유자의 유튜브 영상 시청 동기나, 창작자의 시조 소재 영상 제작의 의도, 목적에 의해 새롭게 동기화하며, 유튜브라는 플랫폼과 각각의 숏폼 영상에 적합한 형태로 편집, 재생산된다. 특히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영상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소재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점은 시조의 독자성²¹이자 유튜브 영상 제작과 향유에 모두 통용될 수 있는 강점이기도 하다. 예컨대, 강호 시조 등과 같은 자연 친화적인 시조를 소재로 한 뮤직비디오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통해 시청자는 휴식, 힐링 등의 치유적인 효과를 기대하거나 충족할 수 있다. 또한 사랑, 이별 등의 정한을 다루고 있는 기녀 시조를 소재로 한 영상은 향유자에게 애상의 정서를 불러일

20 김지은, 「古時調의 밈(meme) 활용양상 연구」, 『시조학논총』 60, 한국시조학회, 2024, 45~46쪽.

21 김지은, 위의 논문, 44쪽 참조.

으킬 수 있다. 이처럼 시조 주제가 형상화하는 특정 정서를 의도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가 제작되면, 이는 유튜브 이용자의 다양한 시청 동기와 제각각 결합하면서 ‘조회 수’라는 반응으로 향유자와 상호작용한다. 또한 영상 조회 후 일부 향유자의 반응이 댓글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반응의 가시화는, 기존의 영상과 유사하거나 기존의 영상에서 탈피한 새로운 영상에 대한 수요와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조의 주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시조가 지니는 기능, 즉, 교육, 흥미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이야기거리로서의 오락, 음악감상을 통한 치유 등은 유튜브 이용자 각자가 지니는 저마다 다른 시청 동기와 맞물려 유튜브 플랫폼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조회’라는 일회적 시청에서 더 나아가 ‘구독’이라는 연속적 시청으로 향유자의 반응의 자장을 생성하고, 시조 소재의 유튜브 영상의 제작, 편집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밈으로서의 시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나간다.

이러한 밈으로서의 시조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첫째, 문화 기억의 전승과 재맥락화에 기여한다. 문화 기억은 안 아스만과 알라이다 아스만이 제시한 개념²²으로, ‘문화적 실천’을 통한 재현에 의해 기억이 보존, 전승, 강화되며 그에 따른 사회, 문화적인 의미를 획득해가는 과정과 연관되며, 사회 내 소통되는 다양한 기억 형태들을 포괄하는 보다 유연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²³ 이와 관련하여 서영호는 인터넷을, 항시적이고 즉각적인 접근성, 정보의 전송·저장과 가공의 용이성, 정보를 매개로 한 사람들 사이의 소통 등으로 인해 디지털 시대의 복잡다기한 기억 구성 양상이 드러나는 공간으로 보고, 특히 유튜브에 저장된 방대한 인류의 기억 자원의 유통과 활용은 다양한 기억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해 준다고 진단하였다.²⁴

22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8.

23 강경래, 『미디어와 문화기억』,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2쪽.

24 서영호, 『유튜브 시대에 문화는 어떻게 기억되는가』, 푸른사상, 2023, 17~19쪽 참조.

시조 밈이 활용된 유튜브 영상 역시 시조와 관련된 문화 기억의 자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자장 속에서 향유자는 ‘문화 기억의 환기’ - ‘문화 기억의 공유’ - ‘문화 기억의 재맥락화’ 중 최소 1가지 이상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둘째, 밈으로서의 시조는 향유자의 특정 정서를 환기시키고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매개체의 기능을 담당한다. 사랑, 충효, 우애, 훈계, 시기, 질투, 험담, 치정, 비판, 성적 욕망 등에 이르기까지 시조에 담긴 주제는 조선 당대에도 특정 정서를 표현하거나 공유하는 기능을 했으며 이는 오늘날의 유튜브 영상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유튜브 영상의 멀티미디어 속성에 의해 밈으로서의 시조는 향유자의 청각, 시각을 다양하게 자극하는 복합적인 기호로 구현된다. 따라서 유튜브의 시조 밈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시조 콘텐츠 향유의 시도와 함께 시조 향유의 다양화와 만족도 증대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밈으로서의 시조는 k-문화 정체성 유지 및 강화와 함께 k-문화 저변 확대의 현상을 포착하거나 전승에 일조할 수 있다. 시조 소재 유튜브 영상을 ‘조회 수’ 기준으로 정렬했을 때 1위로 파악된 영상은 wonder 채널의 “한국 시조 배우다가 한국어의 반전 매력에 푹 빠진 미국 고등학생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이 영상은 k-문화가 해외에서 어떻게 교육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k-문화의 전승 및 저변 확대의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또 2위로 파악된 영상은 TVN의 “[#알쓸신잡1] 쇼미더머니! 정몽주 vs 이방원 ‘시조배틀’의 역사”으로, 이는 인기리에 방영된 TV 프로그램에서 이방원과 정몽주의 정치적 대립을 ‘랩 배틀’ TV 프로그램에 빗대어 소개하는 장면을 짧게 편집한 영상이다. 이러한 주제의 영상이 조회 수 1,2위로 집계된 것은, 전통적인 시조 연행이나 시조 문학 교육 영상이 아닌, 시조와 관련한 해외 상황이나 k-문화로서의 시조의 가능성, 또는 시조와 관련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선보인 영상에 향유자가 더 많은 관심과 반응을 보인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시조 소재 유튜브 영상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를 활용하여, 시조 가창이나 시조 교육 콘텐츠 외에도 k-문화로서의 시조 가능성이나 시조와 관련된 해외 사례 등을 주제로 한 콘텐츠, 시조와 관련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해석이나 소개 등을 다룬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시조를 주제로 한 유튜브 영상이 더 다양해질 수 있으며, 대중의 시조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 역시 더욱 확장될 수 있다. 이는 곧 시조가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고전문학으로 인식되는 한계에서 벗어나 앞으로도 국내 및 해외에서 창작, 교육, 해석될 수 있는, 살아 있는 문학이자 노래라는 대중 인식 지평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시조를 주제로 한 유튜브 영상콘텐츠의 분석을 통해 시조가 유튜브 플랫폼에서 영상으로 재현, 향유될 때 나타나는 특징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2장에서는 조회 수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상위 50개의 순위에 해당하는 時調 주제의 유튜브 영상콘텐츠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이러한 영상의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세부 항목으로 영상 제목, 채널명, 조회 수, 게시일, 재생 시간을 설정하였다. 항목별 분석 결과, 1~50위 사이에 편재되어 있는 시조 소재 영상은 첫째, 제목을 통해 시조 또는 시조창 교육, 공연이나 음악 연행, 시조 관련 현상이나 과거 시조 관련 인물 일화 소개 등의 주제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시조 교육 영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영상의 조회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위 1, 2위에 있는 시조 소재의 영상은, 시조 교육이나 시조 공연이 아닌, 미국에서 시조를 교육하는 현장을 조명한 주제이거나, 기존에 널리 알려진 시조와 관련된 일화를 새롭게 해석한 TV 프로그램의 편집 영상

이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제의 영상에 대한 조회 수가 가장 많다는 것은 곧, 다수의 대중이 k-문화로서의 시조, 또는 시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앞으로 시조 소재의 영상을 기획하거나 제작할 때 참고될 필요가 있는 요소이다. 다음으로,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2020년 이후 업로드된 영상이 50위 이내의 순위에 다수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 문화가 주류를 이루면서 특히 하나의 소주제로 짧은 시간 동안 강의가 진행되는 숏폼 형태의 시조 교육 영상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50위권 내 영상 양상과 특징 분석을 토대로, 3장에서는 시조와 유튜브의 결합에서 발견된 시조 표현, 그리고 향유의 확장 가능성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시조와 유튜브의 결합은 첫째, ‘문자로서의 시조, 음악으로서의 시조’라는 이분법적 관점의 탈피 및 시조의 표현 확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유튜브 플랫폼의 특성을 활용하여 교수자 개개인이 시조 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영상을 제작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분석함으로써, 시조 교육의 다양화 모색 및 실질적인 시조의 디지털 교육 방법론 탐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향유자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시조 밈(meme)의 자장으로서 시조 소재 유튜브 영상이 지니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민족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가 장르이면서 현재까지 창작이 이루어지는 시조의 강점은 유튜브에서 더욱 확장될 수 있다. 단형시이자 노래로 불리던 시조의 특징과 숏폼 형태의 영상 제작과 향유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유튜브의 특징은 서로 융합되기에 알맞다. 또 시조와 유튜브의 융합은 전통과 현재의 크로스오버를 직접적으로 직조해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4년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시시

각각 전 세계의 문화를 한곳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플랫폼, 유튜브를 활용한다면 시조의 새로운 계승과 창조, 향유, 시조 교육의 다양성 모색 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https://www.youtube.com>

2. 단행본 및 논문

- 강경래, 『미디어와 문화기억』,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 강명혜, 「시조의 변이양상」, 『시조학논총』 24, 한국시조학회, 2006, 5~46쪽.
- 강재신, 「ميم 콘텐츠의 커뮤니케이션 분석을 위한 기호학적 접근: 그레마스의 의미 생성모델을 중심으로」, 『CONTENTS PLUS』 18(1), 한국영상학회, 2020, 23~39쪽.
- 김상진, 「실용교과로서의 시조, 시조 교육」, 『시조학논총』 60, 한국시조학회, 2024, 7~38쪽.
- 김지은, 「古時調의 밈(meme) 활용양상 연구」, 『시조학논총』 60, 한국시조학회, 2024, 39~64쪽.
- 류수열, 「한국어교육을 위한 시조의 활용 가능역 연구」, 『문학교육학』 45,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213~237쪽.
- 문혜련, 「미디어를 활용한 유아음악감상 방법의 제안과 그에 따른 활동의 예」, 『어린 미디어연구』 4,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2005, 41~63쪽.
-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 2007.
- 박장순, 「신한류시대의 메인스트림 K-pop의 확산에 관한 연구: K-pop의 밈이론적 해석과 한류사 시대 구분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6(4), 한국외국어대통번역연구소, 2012, 1~24쪽.
- 서영호, 「유튜브 시대에 문화는 어떻게 기억되는가」, 푸른사상, 2023, 17~19쪽.
- 수전 블랙모어, 김명남 역, 『밈』, 바다출판사, 2010.
- 양지애, 「영유아 교육용 콘텐츠 '핑크퐁' 동영상에 수록된 동요의 음악적 특성 분석」, 『예술교육연구』 16(4), 한국예술교육학회, 2018, 61~79쪽.
- 정은선·고정희, 「가상현실을 활용한 한국시조 체험의 가능성과 내용 연구」, 『문학교육학』 76, 한국문학교육학회, 2022, 369~403쪽.
- 조동기, 「사이버 공간의 문화적 특성과 '인터넷 밈'의 확산에 대한 연구」, 『철학·사상·문화』 21, 동국대동서사상연구소, 2016, 215~234쪽.
- 최미경, 「유튜브 어린이 콘텐츠 연구」, 『스토리앤이미지텔링』 19, 건국대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20, 325~354쪽.
- 홍숙영, 「현대시조와 디지털 미디어의 융합 교육 모델 개발」, 『시조학논총』 60, 한국시조학회, 2024, 251~278쪽.

3. 기타 자료

- 윤지영, 「매개의 4가지 유형: 창조, 재창조, 복제, 그리고 소비」, Organic Media Lab, 2013, <https://organicmedialab.com/2013/08/01/4-types-of-mediation/>
- 이경탁 기자, 「'국내 1위 앱' 자리 굳히는 유튜브... 네이버·카카오특과 격차 더 벌려」, <조선일보>, 2024.03.14.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4/03/14/SAPG5CJWLRCRFDRLHKHN2U5WA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Abstract**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YouTube Video Content with the theme of Sijo**

Lee, Chae-Young | Dongguk University Wise Camp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found in the reproduction of these videos by setting up a video group based on the sijo on the YouTube platform, and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production and enjoyment of YouTube videos based on this.

As a result of the study, in Chapter 2, YouTube video contents on the subject of Sijo, which correspond to the top 50 rankings, were sorted based on the number of views, and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se videos were analyzed. Video title, channel name, number of views, posting date, and playback time were set as detailed items for analys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video aspects and characteristics within the top 50, Chapter 3 attempted to examine the expression of the sijo found in the combination of the sijo and YouTube, and the possibility and meaning of expanding enjoyment.

The combination of the sijo and YouTube made it possible to break away from the dichotomous perspective of “sijo as letters, sijo as music” and expand the expression of the sijo. Second, it was considered that by analyzing the fact that there were cases where individual instructors sought various methods of sijo education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YouTube platform and produced videos in various ways, it could lead to the search for diversification of sijo education and the search for a practical digital education methodology of the sijo. Third,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the meaning of Sijo-based YouTube videos as a magnetic field of Sijo memes formed through various interactions of viewers.

However, this paper has a limitation in that it was not possible to specifically confirm the reaction pattern of users watching YouTube on the subject of the sijo. This will be a follow-up task and will be expanded to specific research in the future.

Keywords Sijo, YouTube, video content, platform, meme
